

한국어학

1.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형용사가 형태 변화 없이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.
- ② 파생 접두사의 양이나 종류가 파생 접미사보다 더 많다.
- ③ 어미는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.
- ④ 조사나 어미가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형태가 교체되어 쓰이는 것이 많다.

2. 한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교착어로서 SOV 어순을 갖는다.
- ② 좌분지 구조의 핵 후행 언어이다.
- ③ 감각어와 상징어가 발달해 있다.
- ④ 주어 중심 언어로서 이중주어문이 발달했다.

3. 한국어의 통사적 특징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모든 문장 성분의 이동이 자유롭다.
- ② 문장의 필수 성분은 생략되지 않는다.
- ③ 보조 용언은 본 용언 앞에 위치한다.
- ④ 주체 높임은 조사나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.

4. 한국어 어순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부사가 체언 앞에 올 수 있다.
- ㄴ.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앞에 놓인다.
- ㄷ. 모든 격조사는 보조사 뒤에 위치한다.
- ㄹ. ‘명사 - 수관형사 - 단위성 의존 명사’의 어순이 가능하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ㄹ ③ ㄱ, ㄴ, ㄹ ④ ㄱ, ㄷ, ㄹ

5. 음운 동화의 방향 및 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민 - 순행 · 부분 동화 ② 만이 - 역행 · 부분 동화
③ 밥물 - 순행 · 완전 동화 ④ 설날 - 역행 · 완전 동화

6. 표준어의 단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‘ㅣ’와 ‘ㄱ’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 대립을 보인다.
- ② ‘ㄴ’와 ‘ㄷ’는 혀의 높이에서 대립을 보인다.
- ③ ‘ㄱ’와 ‘ㄷ’는 혀의 높이에서 대립을 보인다.
- ④ ‘ㄱ’와 ‘ㄴ’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 대립을 보인다.

7.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, ‘ㄴ’ 첨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?

- ① 나는 알약을 먹는다.
- ② 이 사실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.
- ③ 그에게는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다.
- ④ 나는 반달연을 만들어서 연날리기를 했다.

8.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, 음운론적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‘도밥’에는 ‘대치’만 적용되었다.
- ㄴ. ‘물약’에는 ‘첨가’와 ‘대치’가 적용되었다.
- ㄷ. ‘닭띠’에는 ‘탈락’과 ‘대치’가 적용되었다.
- ㄹ. ‘국화’에는 ‘탈락’과 ‘축약’이 적용되었다.

- ① $\neg, \bot$ ② $\neg, \supset$ ③ $\bot, \supset$ ④ $\supset, \supset$

9. 현대 한국어의 자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양순음 계열에는 마찰음이 있다. ② 경구개음 계열에는 비음이 있다.
- ③ ‘ㄴ’과 ‘ㄸ’은 조음 위치가 같다. ④ ‘ㄱ’과 ‘ㅎ’은 조음 방법이 같다.

10. 다음 중 자음에서 조음 위치의 종류가 가장 많은 단어는?

- ① 산골 ② 행복 ③ 정면 ④ 빨강

11. 현대 한국어의 음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종성에서 ‘ㄸ’을 발음할 수 있다.
- ② ‘ㅇ[ŋ]’은 초성과 종성에 올 수 있다.
- ③ 초성에는 자음이 2개까지 올 수 있다.
- ④ 종성에서 발음 가능한 자음의 종류는 7개이다.

12. 한국어의 마찰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마찰음의 수는 모두 4개이다.
- ② 마찰음 ‘ㅎ’은 초성에서만 발음된다.
- ③ 마찰음의 조음 위치에는 치조와 경구개가 포함된다.
- ④ 마찰음의 조음 과정에는 ‘폐쇄 - 지속 - 개방’의 단계가 있다.

13.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?

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,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- ① 날씨가 추워 옷을 걸쳐 입었다.
- ②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.
- ③ 여기에 풀을 붙이고 나니 잘 떨어지지 않는다.
- ④ 풀이야! 나는 내 동생 ‘풀잎’의 이름을 불렀다.

14. 시간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‘-더-’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에 쓸 수 없다.
- ② ‘-겠-’은 ‘-(으)ㄴ 것이-’보다 객관적 근거에 의한 판단을 나타낸다.
- ③ ‘-았/었-’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후행하는 미래의 일을 표시하는 데 쓸 수 없다.
- ④ 기준 시점은 발화시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발화시 이외의 다른 시점으로 옮겨지기도 한다.

15.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?

- ① 형이 동생을 울린다.
- ② 친구들이 팽이를 돌린다.
- ③ 이모가 솔이에게 밥을 먹였다.
- ④ 철수는 동네에서 천재로 이름을 날렸다.

16. 밑줄 친 보조 용언 중 품사가 다른 것은?

- ① 예쁘기는 하였다.
- ② 매우 건강해 보였다.
- ③ 그 옷을 입어 보았다.
- ④ 하루에 한 알씩 먹기는 했다.

17.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와 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ㄱ. 나도 같이 가고자 한다.
- ㄴ. 어제 먹던 빵이 어디에 있지?
- ㄷ. 철수는 아직도 의자에 앉아 있다.
- ㄹ. 동생이 울면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른다.

- ① ㄱ: 현재에 있어서 완료된 일을 표시한다.
- ② ㄴ: 과거의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표시한다.
- ③ ㄷ: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표시한다.
- ④ ㄹ: 두 행동이 일의 선후 없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표시한다.

18. 높임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데리다’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객체를 높일 때는 ‘모시다’를 사용한다.
- ②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등급 결정은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정된다.
- ③ 하오체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존중하는 등급으로 하계체보다 상대를 높이 대우할 때 사용한다.
- ④ 높임의 대상이 주체일 때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, 가족은 간접 높임으로 쓸 수 있다.

19. 감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활용을 하지 않는다.
- ② 동사보다 자립성이 강하다.
- ③ 바로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.
- ④ 일반적으로 격조사나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.

20. 밑줄 친 단어가 서로 같은 품사로 쓰인 예가 아닌 것은?

- ① 가만, 내 말 좀 들어 봐. / 가만히 앉아 있어라.
- ② 노래 실력은 오빠가 단연 으뜸이었다. / 그의 미술적 재능은 단연히 뛰어났다.
- ③ 응당 그럴 일이었다. / 그만한 능력이면 그 정도의 대우는 응당히 받아야 한다.
- ④ 불쌍한 생각에 자연 눈물이 났다. / 그들은 같은 집에 하숙하면서 자연히 알게 되었다.

21.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가 아닌 것은?

- ① 수지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렸어요.
- ② 음악을 듣느라고 설명을 듣지 못했다.
- ③ 봄이 오면 솔이는 유학을 떠날 것이다.
- ④ 여기에서는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마세요.

22. 연결 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목적의 ‘-(으)러’는 형용사, 동사와 결합한다.
- ② 이유의 ‘-느라고’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다.
- ③ 조건의 ‘-아야/어야’는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올 수 있다.
- ④ 시간의 ‘-고서’는 시제를 나타내는 ‘-았/었-, -겠-’ 등의 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.

23. 조사의 생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구조격 조사는 생략이 쉽지 않다.
- ② 어휘 의미적인 특성이 강한 보조사는 생략이 쉽다.
- ③ 주어에 초점이 놓이면 주격 조사는 생략이 쉽지 않다.
- ④ 부사격 조사는 문법적 의미 기능이 약하여 생략이 쉽다.

24. 다음 이어진 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ㄱ.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.
 ㄴ. 피자를 먹거나 햄버거를 먹자.
 ㄷ.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샤워를 한다.
 ㄹ. 수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.

- ① ㄱ: 선행절을 후행절의 내부로 이동시킬 수 있다.
 ② ㄴ: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명제적 의미가 달라진다.
 ③ ㄷ: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질 경우 비문이 된다.
 ④ ㄹ: 선행절의 ‘타고’에 ‘-았-’이 결합할 경우,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미적 종속성이 약화한다.

25. 종결 어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‘-네’는 현재의 지각에 의해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사용할 수 있다.
 ㄴ. ‘-구나’는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사용하는데 1인칭 주어와 함께 쓸 수 없다.
 ㄷ. ‘-(으)르래’는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와만 어울리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와만 어울린다.
 ㄹ. ‘-지’는 해라체 등급을 표현하면서 억양에 따라 평서문, 의문문,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어미이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ㄱ, ㄷ, ㄹ

26. 다음과 같은 단어 형성법으로 묶인 것은?

집게, 높이, 치밀다, 뒤틀다

- ① 기쁨, 덧나다 ② 덮밥, 되문다
 ③ 덮개, 어느새 ④ 많이, 섞어찌개

27. 밑줄 친 부분에 파생 접미사가 사용된 것은?

- ① 우리가 서로 웁읍을 인정해야 한다.
- ② 공간이 좁아서 이곳에 주차하기가 힘들다.
- ③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.
- ④ 그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.

28. 밑줄 친 부분이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것은?

- ① 나는 동생과 외가에 다녀왔다.
- ② 내 친구도 무역 회사에 다닌다.
- ③ 아이가 국수도 맛있게 먹었다.
- ④ 이것은 가짜인데 진짜와 똑같군요.

29. 안은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간접 인용절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가 나타날 수 있다.
- ② 서술절을 안은 문장에는 안긴문장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.
- ③ 명사 ‘소문, 소식, 사건’은 동격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.
- ④ 명사형 어미 ‘-ㅁ’과 ‘-기’는 안은절의 서술어에 따라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.

30. 의미 관계가 다른 것은?

- ① 집 - 문 ② 꽃 - 장미 ③ 손가락 - 손톱 ④ 자동차 - 바퀴

31. 동의 경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?

- ①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에서는 항상 한자어가 생존한다.
- ② 두 단어가 의미 영역을 분담하여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.
- ③ 경쟁 결과 의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사용 빈도만 달라진다.
- ④ 경쟁하는 단어 중 동음이의어가 있는 쪽이 생존 가능성이 높다.

32. 혼종어로 옳은 것은?

- ① 양말 ② 미나리 ③ 떡케이크 ④ 시나리오

33. 상보 반의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된다.
- ②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, 비교 표현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.
- ③ 판단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.
- ④ 한쪽 단어의 단언과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사이에 일방함의 관계가 성립한다.

34. 고유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?

- ① 책값 ② 시누이 ③ 사진첩 ④ 외할머니

35. 외래어로만 묶인 것은?

ㄱ. 우동	ㄴ. 로망	ㄷ. 메뉴판	ㄹ. 호프집	ㅁ. 아지트
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

- ① ㄱ, ㄷ ② ㄱ, ㄴ, ㅁ ③ ㄴ, ㄹ, ㅁ ④ ㄴ, ㄷ, ㄹ, ㅁ

36.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가 아닌 것은?

- ① 부모(父母) ② 식구(食口) ③ 감기(感氣) ④ 전답(田畓)

37. 의미 해석의 정도성이 불투명한 것은?

- ① 눈에 들다. ② 무릎을 꿇다. ③ 시치미를 떼다. ④ 말이 넓다.

38. 의미 가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장인’은 자신의 기술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이다가 비하의 의미가 생겨났다.
- ② ‘영감’은 벼슬아치를 가리켰으나 중년이 지난 남자를 지칭할 때 쓰인다.
- ③ ‘계집’은 아내의 의미로 쓰이다가 여자를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게 되었다.
- ④ ‘마누라’는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켰으나 자신의 아내를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게 되었다.

39. 전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경제 분야의 전문어 ‘공수표’는 일상에서도 사용된다.
- ② 야구 분야의 전문어 ‘홈런’이나 ‘대타’는 일상어로도 사용된다.
- ③ ‘노년기’는 ‘지형의 침식 윤회의 최종 시기’로 사용되기도 한다.
- ④ ‘대퇴부’, ‘수산화나트륨’은 일상어 ‘넓적다리’, ‘소금’에 대응하는 전문어이다.

40. 한자 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승부를 가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선수는 십시일반(十匙一飯)이다.
- ② 그 회사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(適材適所)에 배치한다.
- ③ 그는 결자해지(結者解之)의 자세로 사태를 수습하였다.
- ④ 그에게는 나의 충고가 마이동풍(馬耳東風)이었다.

41. 밑줄 친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손을 다쳤다. - 손 없는 날에 이사하자. : 다의어
- ②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. -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. : 동음이의어
- ③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척 섭섭했다. - 속이 짝 찬 배추로 김장을 한다. : 동음이의어
- ④ 햇살에 눈이 부셔서 뜨지 못하겠다. - 저울의 눈을 속여 파는 일은 없다. : 다의어

42. 환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주전자가 끊고 있다.
- ② 오늘은 베토벤을 들었다.
- ③ 그 아이는 우리 반의 햇살이다.
- ④ 앞 줄의 긴 머리가 먼저 발표했다.

43. 의미성분 분석에서 진단적 성분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형/동생: [±동기] ② 총각/처녀: [±인간]
- ③ 암탉/수탉: [±남성] ④ 아버지/어머니: [±성숙]

44. 중의성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?

- ① 너는 무슨 차를 좋아하니? ② 나는 친구와 동생을 기다렸다.
- ③ 민수는 웃으며 떠나는 영희를 보았다. ④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아들을 더 아낀다.

45. 리치(G. Leech)의 의미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서적 의미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낸다.
- ② 개념적 의미는 언어 표현의 핵심적이고 논리적인 의미이다.
- ③ 사회적 의미는 발화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드러낸다.
- ④ 주제적 의미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감정적 반응으로부터 도출된다.

46. 제시된 문장의 전제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“그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후회한다.” - 그는 실수했다.
- ② “수아는 동생이 합격했다고 믿는다.” - 동생이 합격했다.
- ③ “준호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.” -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.
- ④ “민지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.” - 민지는 이전에 피아노를 친 적이 있다.

47. 대화의 격률을 위배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?

- | | |
|--|--|
| ① 질의 격률
ㄱ: 넌 삶이 뭐라고 생각하니?
ㄴ: 삶은 코미디야. | ② 양의 격률
ㄱ: 이번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?
ㄴ: 응. 잘. |
| ③ 태도의 격률
ㄱ: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?
ㄴ: 그 친구는 사과를 원할 것 같아요. | ④ 관련성의 격률
ㄱ: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?
ㄴ: 집에서 푹 쉴까 해요. |

48. 약속화행의 적정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명제내용조건 - 화자가 수행해야 할 미래의 행동이어야 한다.
- ㄴ. 예비조건 - 화자는 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.
- ㄷ. 성실조건 - 화자는 청자가 그 일을 함께하기를 원하여야 한다.
- ㄹ. 본질조건 - 화자의 상태가 비의무에서 의무로 바뀐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ㄱ, ㄴ, ㄹ ④ ㄱ, ㄴ, ㄷ, ㄹ

49. 다음 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ㄱ. 죄송한데요, 불펜 좀 빌려 주실 수 있을까요?
- ㄴ. (선생님이 학생들에게) 교실에서 떠들면 되겠니?

- ① 언어경제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다.
- ② 청자가 직면하게 될 체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발화이다.
- ③ ㄱ에서 요청을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은 공손성과 관련이 있다.
- ④ ㄴ은 직접화행으로 간접화행인 ㄱ보다 공손성의 정도가 낮다.

50. 직시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?

- ① 우리는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.
- ② 내가 할 차례인데 그쪽이 끼어들었어요.
- ③ (식당 메모) 한 시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
- ④ 철수가 준 시계, 그것은 영희가 좋아하는 명품이야.

51. 질의 격률 위배를 피하기 위한 울타리 표현인 것은?

- ①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지만, 민수가 버스정류장에 있었어요.
- ②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.
- ③ 충분하게 설명드린 것처럼,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
- ④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, 그 분은 어린애같은 천진난만함이 있어.

52. 훈민정음 제자 원리 중 가획(加劃)이 적용된 것은?

-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ㅁ

53. 다음 문장에서 자립형태소끼리 묶인 것은?

불휘 기쁜 남곤 브르매 아니 뭇썩 곳 도쿄 여름 하느니 (용비어천가, 2장)

- ① 불휘, 기쁜 ② 불휘, 아니, 곳
- ③ 아니, 뭇썩, 곳 ④ 기쁜, 뭇썩, 도쿄

54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헌은?

사신으로 왔던 중국 송나라의 손목이 지은 것으로 고려 시대의 풍습, 제도, 언어 따위를 소개한 책이다. 당시의 고려어 356개 단어를 한자로 적어 놓았다.

- ① 계림유사(鷄林類事) ② 동문유해(同文類解)
- ③ 벽온신방(辟瘟新方) ④ 사성통해(四聲通解)

55. 표기가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?

- ① 해숙하다, 산듯하다, 소쩍새, 살짝 ② 짹짹하다, 씹슬하다, 쓱쓱쓱, 씹살하다
- ③ 날날히, 집집이, 살살히, 곳곳이 ④ 꼬락서니, 끄트머리, 모가치, 이파리

56.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그가 떠난지가 오래다. ②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.
③ 먹을 만큼 먹어라. ④ 책상, 걸상 등이 있다.

57. ()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?

- 외상값이 잘 ().
○ ()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.
○ 영월을 () 왔다.
○ () 이틀 걸릴 일이다.

- ① 거친다, 걸잡을, 거쳐, 건잡아서 ② 거친다, 걸잡을, 거쳐, 걸잡아서
③ 건힌다, 건잡을, 거쳐, 걸잡아서 ④ 건힌다, 건잡을, 거쳐, 건잡아서

58.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맑다[막따] ② 없다[업 : 따] ③ 젊다[점 : 따] ④ 짧다[짹따]

59.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?

- ① 광주리-광우리 ② 택견-태견 ③ 짜장면-자장면 ④ 품새-품세

60.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fighting(화이팅) ㄴ. thank you(뽕큐) ㄷ. accessory(액세서리)
ㄹ. symposium(심포지엄) ㅁ. carol(캐롤) ㅂ. color(칼라)

- ① ㄱ, ㄴ ② ㄷ, ㄹ ③ ㄱ, ㄹ, ㅁ ④ ㄴ, ㄷ, ㅂ

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

61. 응용언어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언어의 구체적인 사용 맥락이나 학습자의 환경을 배제하고, 인간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보편문법 체계만을 탐구하는 학문이다.
- ② 언어와 언어 사용자 및 사용 맥락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.
- ③ 이론언어학의 하위 분야이며, 이론언어학에서 도출된 가설을 현장에 적용할 뿐, 그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보완·수정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.
- ④ 언어학의 방법론만을 배타적으로 채택해야 하므로 사회학, 심리학 등 인접 학문과의 다학제적 교류를 제한한다.

62. 다음에 해당하는 응용언어학의 하위 분야는?

인간의 언어 이해 및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 장애를 예방하고 진단 하여, 적절한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한다.

- ① 법언어학
- ② 전산언어학
- ③ 언어병리학
- ④ 코퍼스언어학

63. 코퍼스언어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언어학자의 직관과 내성(introspection)을 최우선적인 연구 수단으로 삼는다.
- ②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을 근간으로 한다.
- ③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수집된 실제 언어 자료의 관찰에 기반을 두는 경험주의적 학문이다.
- ④ 촘스키(N. Chomsky)의 생성문법 이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, 언어 능력의 존재를 입증 하기 위해 출발하였다.

64. 언어 이론 및 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쉬르(F. Saussure)는 언어에 대해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로 구분하고 공시적 연구를 강조하였다.
- ② 규범문법은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문법성에 근거하여 영어와 같은 현대어의 문법을 판단하였다.
- ③ 촘스키(N. Chomsky)는 화자와 청자가 지닌 언어 지식을 언어 기술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제 사용을 언어 능력이라고 하였다.
- ④ 기술문법은 언어의 문법성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자료를 보고 그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이다.

65. 문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수메르인의 썩기 문자의 발달은 음소 문자에서 음절 문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.
- ②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일부는 그리스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.
- ③ 키릴 문자는 로마자에서 변형되어 슬라브 지역에 파급되었다.
- ④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이며 모두 음소 문자로 발전하였다.

66. 인간 언어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초월성(displacement): 화자나 청자가 ‘지금, 여기’와 관련 없는 것을 말하고 들을 수 있다.
- ② 자의성(arbitrariness): 말의 음과 의미는 필연적 상관성이 있어 역사적으로 소리가 변해도 뜻을 알 수 있다.
- ③ 창조성(creativity): 유아기 아동은 부모나 양육자의 말을 모방하면서 말을 배운다.
- ④ 분절성(discreteness): 말소리는 한 사회에서 고정되어 변하지 않으며 음소의 순서를 바꾸면 비문법적인 발화가 생성된다.

67. 조음음성학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파찰음: 입안 기류의 통로가 막혔다가 곧이어 약간 열려 마찰을 일으키며 발화되는 소리
- ② 유음: 기류가 마찰음 때보다 덜 방해 받아 물이 흐르듯이 나오는 소리
- ③ 활음: 기류의 장애가 거의 없으며 모음의 앞이나 뒤에 와서 미끄러지듯 나는 소리
- ④ 유기음: 발화 시 성대 두 개가 맞닿아 있어 기류가 지나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소리

68. 최소대립쌍(minimal pair)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‘말썽’과 ‘발성’처럼 두 음절에서 첫소리가 다르게 나서 구분되는 두 단어
- ② ‘문리’와 ‘물리’처럼 한 곳에서만 철자가 다르지만 동화되어 같이 발음되는 두 단어
- ③ ‘심판단’과 ‘심판진’처럼 한 음절이 다르고 뜻이 비슷한 두 단어
- ④ ‘진단’과 ‘진담’처럼 같은 위치에서 한 소리가 달라 뜻이 다른 두 단어

69. 화용론의 연구 분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말의 사용과 물리적, 언어적 맥락에 따른 의미를 연구한다.
- ② 숨은 의미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적 의미에 관심을 둔다.
- ③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여 말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한다.
- ④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분석한다.

74.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의 언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, 자신의 말을 산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.
- ② 발화 속도가 매우 느리며, 기능어나 문법 형태소가 주로 생략되는 전보식 발화 (telegraphic speech)를 한다.
- ③ 발화는 유창하지만, 내용어가 부족하거나 무의미한 단어를 나열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.
- ④ 조음 기관의 근육 마비로 인해 발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운동성 말 장애를 보인다.

75. 다음을 설명하는 용어는?

‘blip’이라는 목표 단어에 대해 ‘tlip’이나 ‘blep’보다는 ‘slip’이라는 발화 오류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.

- ① 단어 우선 효과(word superiority effect) ② 어휘 편향 효과(lexical bias effect)
- ③ 설단 현상(tip-of-the-tongue phenomenon) ④ 자동적 처리(automatic processing)

76. 사회언어학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피진(pidgin): 어휘의 수가 적고 복잡한 문법 규칙도 없어 매우 단순화된 언어를 말한다.
- ② 언어 태도(language attitude): 특정 언어 및 그 언어 사용자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.
- ③ 코드 전환(code switching): 현재 처한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크레올(creole): 피진보다는 언어 체계가 안정되고 어휘가 확장되며 언어 구조는 더 정교한 언어를 말한다.

77. 양층어(diglossia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상층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며 하층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.
- ② 상층어와 하층어는 문법적으로 상이하나 사용 영역이 비슷하여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.
- ③ 이집트는 고전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가 병존하는 양층어 상황에 있다.
- ④ 아이티(Haiti)에서는 상층어인 프랑스어와 하층어인 아이티 크레올(Haiti creole)이 쓰인다.

78. 제2 언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목표어의 완벽한 문법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발생하는 비체계적인 오류의 집합이다.
- ② 모어 및 목표어와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규칙 체계이다.
- ③ 학습자의 모어에서 긍정적 전이가 발생한 문법 항목만을 모아 놓은 언어 체계이다.
- ④ 유아기의 제1 언어 습득 과정에서 관찰되며, 성인 학습자의 제2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.

79. 스웨인(M. Swain)의 출력 가설에서 출력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알아차리기(noticing) 기능: 학습자는 목표어를 말하거나 쓸 때 자신의 중간 언어 지식에 공백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게 된다.
- ② 가설 검증 기능: 학습자는 자신의 발화에 대한 대화 상대방의 피드백을 통해 목표어에 관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한다.
- ③ 메타언어적 기능: 학습자는 언어 산출 과정에서 동료와의 협동적 대화 등을 통해 언어 규칙 자체를 성찰한다.
- ④ 자동화 기능: 언어 출력 연습은 통제된 처리를 지연시켜 학습자가 의미 이해를 차단하고 문법 형태소만을 느리게 처리하도록 한다.

80. 밴패튼(B. VanPatten)의 입력 처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첫 번째 명사 원리’에 따르면, 제2 언어 학습자가 문장의 첫 번째 명사나 명사구를 행위자나 주어로 먼저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.
- ② ‘어휘 선호 원리’에 따르면, 어휘 단서와 문법 표지가 동일한 문법 범주를 나타낼 때, 학습자는 어휘 단서를 먼저 처리한다.
- ③ 입력 처리 이론에 기반한 ‘처리 교수’는 학습자가 잘못된 처리 전략을 버리고 형태와 의미 간에 올바른 연결을 맺도록 유도하는 이해 기반의 기법이다.
- ④ 학습자의 두뇌는 인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 전달력이 낮고 중복되는 문법 형태소를 문장의 내용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한다.